월간「建築士」誌 내용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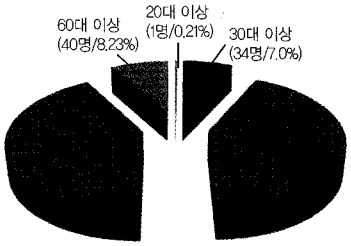
21세기는 '건축문화의 내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로서, 대한민국 건축의 살아있는 역사의 장이되는「建築士」誌 를 통하여 회원의 참여와 소통을 지향하고자 함에, 이번 설문조사는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늠하고 또한 잡지로서의 개선의 근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Ⅰ. [기본사항 및 관심도] Ⅱ. [건축사지 만족도] Ⅲ. [향후의 방향] 12) [기타 건의 사항]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각각 4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전체 문항은 12개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1.기대지수/ 2.만족지수/ 3.미래지수/ 4.행복지수라는 4카테고리의 분석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주관식 문항의 [12)기타 건의 사항]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임으로서 회원 스스로가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또한 회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 발주제도, '건축법규' 등과 같은 당면 문제들의 절실한 호소를 눈 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기간 : 2011년 7월 27일 ~ 9월 9일
2. 설문조사 방법 : 인터넷, 설문지 조사 병행
3. 지 역 :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건축사회
4. 대 상 : 전국 건축사 정회원
5. 전체 설문참여인원 : 486명
(1차 : 220명, 2차 : 115명, 서면제출 : 1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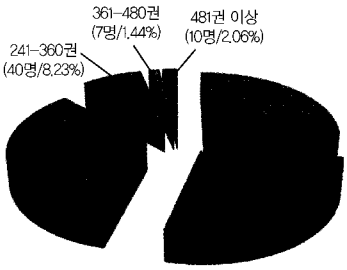
Ⅰ. 기본사항-관심지수 분석

1)응답하시는 건축사님의 만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답변 : 총 4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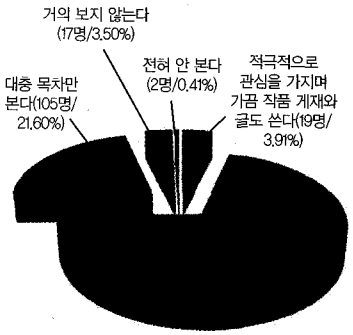
설문 조사의 연령대는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의 기대지수가 젊게 나타났다. 특히 40대(42.59%)가 50대(41.98%) 보다 0.61%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2)지금까지 건축사님이 보유하신 건축사지는 몇 권 정도이십니까?
(답변 : 총 4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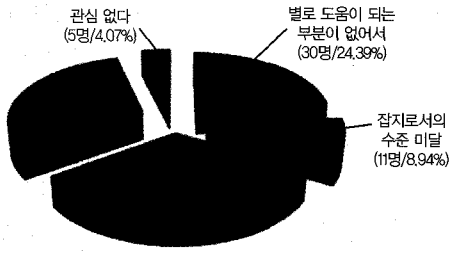
「건축사」지는 보통 40대의 경우 개업 후 10년이라고 하면 120권정도(12권/년X10년)보유하게 됩니다. 121~240권이라고 답한 회원이 34.36%로 가장 많은 것은 10~20년 정도 건축사지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것은 40년 정도 이상 된 회원들은 480권 이상이 되므로 각별한 애정을 보내드리고자 한다.

3)「건축사」지는 얼마나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답변 : 총 486명)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궁금하였던 부분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회원들의 〈관심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기대지수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 항목의 1, 2번 문항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74.49%로서 「건축사」지를 통한 행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건축사」지는 회원들이 보내는 성원으로 광범위한 필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내용으로 매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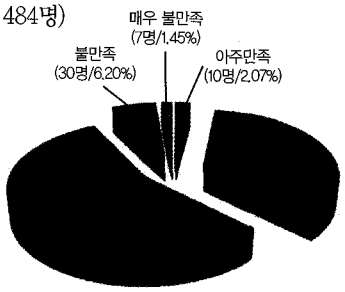
4)위의 3번 문항에서 만약 ③~⑤항목을 선택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총 123명)



〈위의 3번 문항에서 만약 ③-⑤항목을 선택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대충 목차만 본다(105명/21.60%)/ ④거의 보지 않는다(17명/3.50%)/ ⑤전혀 안 본다(2명/0.41%)]라고 물었다. 물론 〈업무에 바빠서〉라는 회원도 30.89%로 나타났지만, 3번 문항의 〈회원작품(준공작품 등) 게재의 형식적 편집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이 31.71%나 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편집 기획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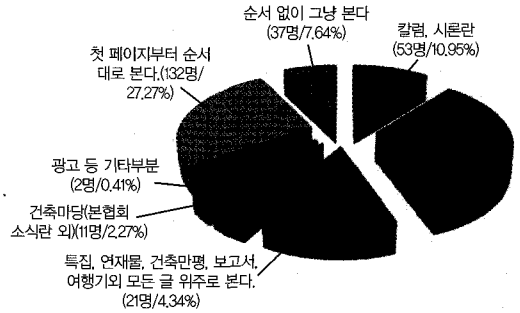
II. 건축사지 만족도-만족지수

5)「건축사」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답변 : 총 4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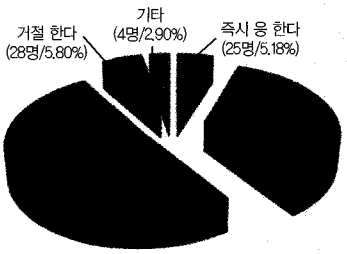
〈「건축사」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 만족하는 회원은 37.19%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는 회원은 55.17%나 되었다. 또한 불만족 계열에도 7.65%의 통계 수치가 보인다. 건축사지 편집위원회의 고뇌가 따른다. 그러나 회원이 원하는 만족지수는 도달될 것이다.

6)매달「건축사」지를 받아 보시면 처음 어느 부분부터 보십니까?
(답변 : 총 484명)



회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회원작품(준공작품)란〉인 것 같았다. 매달 회원들에게 소개되는 작품이야말로 그 새롭고 신선함은 설계를 천직으로 하는 회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회원작품란〉문항이 1위 (33.4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본다〉도 27.27% 가 되어 2위가 된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정독을 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건축사」지로서의 회원과의 소통은 회원작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콘텐츠가 전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일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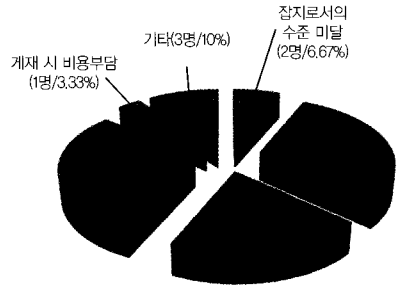
7)만약 건축사지편찬 T/F위원회로 부터 회원님 작품(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모두)과 글의 게재요청이 온다면? (답변 : 총 483명)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축사지에 대한 〈참여와 소통〉의 문제에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지수가 되는 내용이 바로 7번 문항이었다. 회원들은 〈만약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로 부터 회원님 작품(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모두)과 글의 게재요청이 온다면? (답변 : 총 483명) 〉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즉 〈① 즉시 응 한다 (25명/ 5.18%) ② 준비한 후에 응 한다 (170명/ 35.20%) ③ 생각해 본다 (246명/ 50.93%) ④ 거절 한다 (28명/ 5.80%) ⑤ 기타 (14명/ 2.90%)〉의 내용이었다. 여기서 「건축사」지에

개제하고자 하는 회원은 〈①, ②, ③〉문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yes의 대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는 전 회원에게 동참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정확히 91.31%)들은 90%가 넘게도 편찬위의 (작품, 글)개제 청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매우 귀한 문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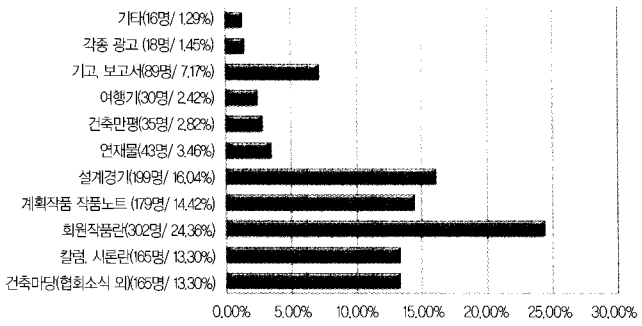
8)위의 7번 문항에서 만약 ④항목의 내용인 〈거절 한다〉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총 30명)



〈위의 7번 문항에서 만약 ④항목의 내용인 〈거절 한다〉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총 30명)〉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 답은 〈② 업무에 바빠서/ ④ 관심 없다 〉문항이 30%나 되었다. 또한 〈③ 대형작품 게재 위주의 불만〉도 20%정도가 되기도 하였다. 편찬위의 기획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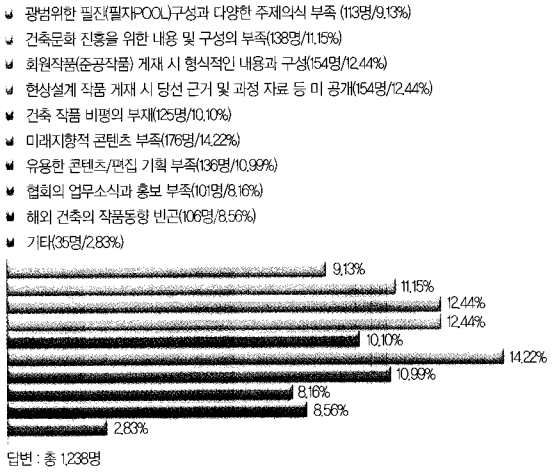
Ⅲ. 향후의 방향-미래지수

9)현재「건축사」지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은? (3가지만 표기) (답변 : 총 1,2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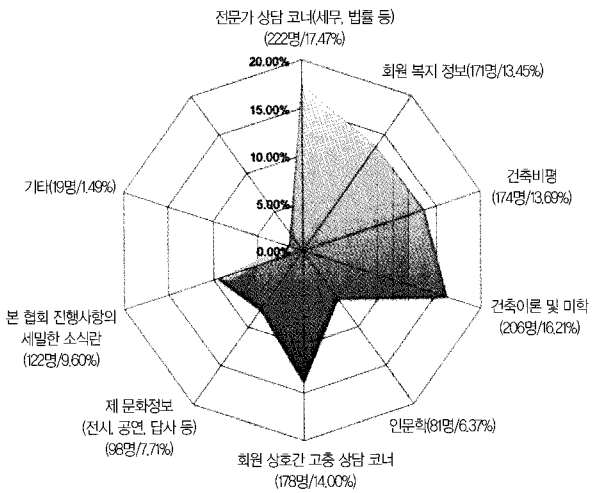
이번 2011년 설문조사에서 〈9.10.11.〉항목은「건축사」지의 미래지수의 지표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건축사」지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을 물었다. 총 1,241명(1인 3가지 표기)의 회원이 답을 하였다. 1위에서 3위는 〈회원작품란(302명/ 24.36%)/ 설계경기(199명/ 16.04%)/ 계획작품, 작품노트 (179명/ 14.42%)〉의 순서를 갖는다. 6번 항목에서 〈매달「건축사」지를 받아 보시면 처음 어느 부분부터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회원작품(준공작품)란〉문항이 1위 (33.47%)를 차지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미래는 보다 멋진 편집기획을 통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 차고 넘쳐 풍부한 분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10) 현「건축사」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답변:총1,238명) (주 된 것 3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회원들이 지적하는「건축사」지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회원들의 현명함이 나타나는 부분이었다. 1위는 6번 문항인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으로서 14.22%나 되었다. 5위까지를 살펴보면 〈2위-회원작품(준공작품) 게재 시 형식적인 내용과 구성(154명/ 12.44%) / 3위-현상설계 작품 게재 시 당선 근거 및 과정 자료 등 미 공개(154명/ 12.44%)/4위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내용 및 구성의 부족(138명/ 11.15%) /5위 유용한 콘텐츠/편집 기획 부족(136명/ 10.99%)〉로 나타났다.

11) 앞으로「건축사」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3가지만 표기) (답변:총1,271명)



〈미래지수〉의 자료로서 11번 항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되었다.

〈앞으로 「건축사」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을 설문으로 제시하였다. 3가지만 표기하는 것으로 했을 때 답변은 총 1,271명이 해 주었다. 특별하게도 〈건축이론 및 미학〉문항이 2위를 차지하면서, 16.21%를 차지하였고, 건축비평도 13.69%로서 4위에 오른다. 이제 미래의 「건축사」지도 〈인문학의 「건축사」지〉가 되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희망이 있음을 볼 수있는 부분이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다변화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에 〈전문가 상담 코너(세무, 법률 등) (222명/ 17.47%)〉가 1위에 오르고 〈회원 상호간 고충 상담 코너(178명/ 14.00%)〉가 3위에 올랐다.

2011년 대한건축사협회 월간 「建築士」誌 내용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의 건의사항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건의사항 내용은 회원들의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낸 정성어린 애정과 고뇌가 담긴 것으로써 전체답변이 106개나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에 나타난 것은 62개 문항, 2차는 29문항 그리고 3차에서는 15문항이었다. 무려 100문항이 넘는 건의사항이었다. 일단은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3-12항목으로 분류하고, 이어서 각 항목에 따른 문항을 전체적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6개의 카테고리는 〈(1)건축문화 (2)「건축사」지 (3)건축법규/발주제도 메카니즘 (4)회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5)협회의 업무 6)기타〉로 나누었다. 특히 회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감 없이 표현한 부분은 귀 귀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시대에 창작해야 할 건축 정신의 내면적 아름다움으로써 카테고리의 첫 번째는 〈(1) 건축문화〉를 상위에 두었다. 그에 따른 3항목은 1.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2.건축지성의 역할/ 3.건축문화운동으로 나누었다. 나머지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건축사지〉1.차별화된 전문잡지 2.진실한 에토스의 잡지 3.편집, 디자인, 기획 4.중소규모 프로젝트 5. 회원 대변의 잡지 6.회원의 참여 촉구 7.건축사란 의미, 건축가란 용어 8.지역건축사회 9.발행일과 종이봉투 10.실명 건축사 11.인터뷰, 봉사, 실용성, 실무,정보 등 12.수고, 노력, 감사, 신뢰 〈(3) 건축법규/발주제도 메카니즘〉1.실적 지상주의 메카니즘 2.관계법령 〈(4)회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1.먹고 살만 해야지 2.건축사를 위하여 3.신뢰 〈(5) 협회의 업무〉1.감사와 노력 2.문화적 인식 〈(6) 기타〉1.신기술, 신 재료 소개 등이다.

이상의 건의사항 내용을 살펴볼 때 회원들의 깊은 사유를 절절히 엿볼 수가 있었다. 이제 이 귀한 자료는 「건축사」지의 발전 근거 토대가 되어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잡지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 모두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건축의 건축사의 작품은 「건축사」지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짐은 물론이며, 또한 기대, 만족, 미래지수가 모두가 원하는 〈행복지수〉의 단계에 까지 도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건의사항 내용

(1) 건축 문화

1.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1-1.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데 이는 자업자득인 면이 많습니다. 건축사로서의 품위를 각자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여론 수렴했으면 합니다.

2. 건축 지성의 역할

2-1. 현업에 종사하다보니 대내, 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 또한 마찬가지이고 모든 건축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금 많은 건축사들의 생활이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사가, 나아가 건축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터넷 온라인상이나 어느 곳 이든 한글로 된 건축분야의 知的 정보가 다른 분야(인문, 사회, 경제, 음악과 학등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란 생각이듭니다 집단적 건축지성의 몫을 담당하는 잡지가 되길 바랍니다.

3. 건축문화 운동

3-1. 우리 모두(건축주, 건축사, 시공자)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문화(?)가 다른 상황 속 에서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이 통하는 우리의 건축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나(건축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건축주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시공자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책임과 역할이야 말로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건축문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선 문화(자세)70%와 기술이 30%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기술만 요구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건축문화 운동이 건축사지 부터 있어야 하기에 뜻을 같이 합니다. /결론: 문화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사지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의 사회봉사 참여활동, 건축사 주기적 교육(매너교육, 기술교육, 인문, 사회학 교육 등) 건축사 협회 소속 직

원 매너교육(전화예절, 협회방문 시 직원태도 등…) 기술보다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축사로 거듭 나겠지요… 후배들을 위하여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2) 「건축사」지

1. 차별화된 전문잡지

1-1. 한 가 지 내용이라도 심도 있는 내용이 수록되기를 바랍니다.

1-2. 다른 건축 잡지와는 차별화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학생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아는 수준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1-3. 10,000부를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건축 잡지로서의 전문성과 질을 갖추어야 함. 건축사를 진정 홍보할 수 있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함. 유가지로서 널리 대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수준. 작품이나 글을 엄선하여 수준 높은 건축잡지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편집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함

1-4. 건축사의 의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칼럼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과 향후 건축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함

1-5. 기존 틀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구성 희망

1-6. 건축사 이외의 사람들이 보아도 좋을 정도의 수준 높은 국내외 작품게재

1-7. 건축문화와 디자인의 가치를 홍보, 교육할 수 있는 내용게재

1-8. 신진 건축사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글도 쓰고 교류할 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면 / 회원작품은 주제별로 다루었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사진과 설계 설명 보다는 작가노트를 제대로 넣으면 좋겠다. 지금은 여러 용도의 건축이 형식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때로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많음. 작품수준에 대한 평가는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느 건축잡지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사진, 오래전부터 보았던 것 같은 건물들이 지면을 채우기 위한 내용이라면 곤란할 듯. 그러므로 신진 건축사들의 실험적인 작품이나, 계획안, 스케치 등 좀 역동적인 작품이 「건축사」지를 채워야 할 듯 / 회원 상호 교류공간을 만들어 협업도 하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2. 진실한 에토스의 잡지

2-1. 타 상업의 건축 잡지와 건축이라는 목적물을 다루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협회의 「건축사」지 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그런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건축사를 올바로 알리는 것 이라 봅니다. 현상설계의 당선작을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있는 과정을 밝히는 것 부터가 작품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고, 공정사회, 공정한 경기의 분위기 조성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2. 유행을 따르지는 않고 존재하는 방법보다는 더욱 창조적이며 색깔이 분명한 건축사지가 되기를…

3. 편집, 디자인, 기획

3-1. 편집디자인을 바꿔야 할 것임.

3-2. 타 잡지에 비해 게재되는 작품 수준이 너무 낮음 / 필진의 수준도 향상 필요(수준 낮은 협회 임원에서 탈피)

협회 회원의 동호인지에서 진정한 건축 저널로 위상 확립 필요(의미 없는 여행기, 위원회 보고서, 협회 행사로 지면 낭비) 표지, 편집의 디자인 수준 향상 (70년대 잡지 수준임)

3-3. 설계 경기 작품을 흑백으로 연재하는데 칼라화하면 좋겠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는 코너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4. 다른 건축 잡지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은 수준의 양과 내용 및 소상한 협회 업무진행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3-5. 회원작품 코너에서 건축개요 한글표기요망

3-6. 설계 작품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 요청

3-7. 편집되어진 작품들의 규모나 내용이 대형건축사사무소 위주로 꾸며지며 작품되 일반적으로 큰 작품도 좋지만 규모가 소규모인 작품도 많은 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3-8. 어떠한 작품이나 글의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접근 「건축사」지를 읽는 회원으로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9. 「건축사」지 전체를 칼라로 인쇄…

3-10. 「건축사」지의 발간은 우리 건축사들의 자긍심이다. 매월 발행되는 「건축사」지를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감찰설계협회에 보내고 있다. 전체를 영문으로 발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도 발행해야 한다.

3-11. 글씨체와 편집방법이 변화된 부분은 오히려 어색하고 구독에 불편함

3-12.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편찬위원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편찬위원으로 재임 시 자기 작품 싣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3-13.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간적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시간이 다 지난 것들만 수록되는 느낌과 전체적으로 잡지의 디자인이 떨어짐.

3-14. 기타 건축 잡지와 종이 질 부터 차이가 있어 작품 및 사진 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사협회에서 발간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품질과 회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협회로서 최소한의 의무감

(형식적)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음.

3-15. 가능하면 지면을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6. 건축 계획 등에 관한 내용

3-17. 분량(작품)을, 페이지수를 좀 더 늘려야 할 듯

3-18. 페이지수를 조정, 특히 건축에 관하여 많이 기재 요망

3-19. 작품 추가

3-20. 준공작품 게제가 시설물 별로 되어서 나오면 좋겠네요

3-21. 한국 전통건축 소개 및 해설

4. 중소규모 프로젝트

4-1. 너무 대형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성은 떨어지고…소규모건물이나 주거론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4-2. 중소규모 작품도 자주 게재해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 회원작품 개제하는 것들의 건물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 참고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2,000㎡이하의 중소규모 건축물의 작품도 게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회원 대변의 잡지

5-1. 회원을 대변하는 잡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5-2. 건축사만을 위한 건축사지보다는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또 건축사의 의미, 권익들을 충분히 호보 할 수 있는 「건축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5-3. 국가의 건축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길잡이 역할도 해 주었으면 한다.

5-4. 돈 안드는 〈경제적 현상설계〉의 참신한 제도 정착화의 캠페인을 「건축사」지를 통해 촉구요망.(스위스의 경제적 현상설계의 모범답안 참고 바람)

5-5.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적용기준 모호함에 대해 건축사 결의 홍보 등

예) 학교시설 설계대가 표준화(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1409/20110322)적용이 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지 모호함.

5-6. 신문이나 잡지라는 매체는 각각 추구하는 논조가 있어야하므로 「건축사」지는 건축사회원을 대변하는 색깔있는 언론매체로 거듭나야한다. 건축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협회의 색깔을 대외적으로 과감하게 표현하여야한다.

5-7. 건축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는 매체로서의 제 역할과 건축사의 위상제고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6. 회원의 참여 촉구

6-1. 다양한 작품과 회원작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듯 합니다.

6-2. 그저 미안 할 뿐입니다. 실력이 부족하여 내어 놓을 작품도 없고 머리에 든 것이 없어 내세울 이론도 없으면서 그나마 수고하시는 편집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7. 건축사란 의미, 건축가란 용어

7-1. 건축가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건축사」지에 개나 소나, 그리고 법률용어도 아닌 건축가란 용어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건축사가 아닌자(교수 등)가 버젓이 설계자라고 나와 있던데,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전문적이면서 보다 대중적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하면서 존재가치를 수반해야 진정한 전문지라 할 수 있다. 사료됨. 건축사라는 직업명도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는 현실에서 우리들만의 자화자찬은 그만둡시다.

7-3. 가끔 회원 작품 소개시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대학 교수 등이 설계자로 나오던데…

7-4. 간혹 회원작품 소개중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대학교수가 올라오는데…

8. 지역건축사회

8-1. 지역건축사회 회원작품 특집을 해 보시는건 어떠신지…

8-2. 다양한 콘텐츠와 지방회원 건축사의 작품도 더 많이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에 있는 건축사의 작품및 애환을 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 지방의 건축사입니다. 서울 위주,명문대 출신 건축사 위주, 대형작품위주의 편집이 아니라 지방의 소형사무소의 작품도 취급하는 코너 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유용한 관련내용(자재소개 및 특성 알림, 유관기관 내 건축 소식,법규 및 질의회신 내용 등)이 더 많기를 요합니다. 특별기획(소형사무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중견사무소 이야기,건축사 성공기,인허가 이야기 등)코너를 요청 합니다

9. 발행일과 종이봉투

9-1. 발행일을 매월 1일로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9-2. 8월이면 9월 것이 오던가 해야지 8월인데 다 지나가고 9월에 8월을 받아보는 심정 차라리 8월이면 9월호 발행, 사무실에 도착하게 해 주세요.

9-3. 종이봉투

우편으로 배달되는 건축사지 봉투를 비닐봉투에서 재활용종이를 활용한 종이봉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환경을 생각합시다.건축사

가 앞장서야죠!) 「건축사」지 따로 발송.건축문화신문 따로 발송…우편요금 누구 돈으로 냅니까? 가급적이면 같은날 같은 종이 봉투에 담아 보냅시다. 건축사지 잡지책, 휴대하며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크기를 좀더 줄이고, 차라리 두께를 키워서 쉽게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 실명 건축사

10-1. 작품 게재 시 공모 당선작의 경우 엄정한 심사로 모방작품은 일체 제외할 것을 제안 합니다. 전체회원의 능력과 자격의 획일화와 평준화 이념과 건축사가 만드는 「건축사」지의 품격과 권위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품격이 다소 떨어지는 듯함-(편집자님..죄송!!) 실제 작품에 참여한 건축사의 작품과 건축사의 이름만 게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무소의 경우 1년 동안 그 많은 대규모 작품을 혼자서 했다는데, 그런 분이 세계건축의 역사에 길이 안 남으면 코메디겠죠?)

11. 인터뷰, 봉사, 실용성, 실무, 정보 등

11-1. 건축사들이 봉사하는 (실질적:무료 설계,무료 감리) 내용 게제 요청. 이렇게 노력하면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식고취와 더불어 건축사로서의 자긍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2. 중 소규모 사무소 탐방, 문화계 등 전문직 단체장 기고 또는 인터뷰 연재희망

11-3. 첨언하자면 「건축사」지로서 건축사업무 실무에 보다 실용적인 이론 등을 연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4. 디자인이나 설계 기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사례, 교육 강의 등을 많이 수록하였으면 함

11-5. 건축 설계 용역의 실무에 관련된 정책, 제도, 정보 등을 게재해 주었으면 좋겠음

11-6. 보다 다양한 정보와 구성 및 편집으로 업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11-7. 회원 또한 국토부나 서울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우리 건축사 업계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해온 형식에 안주하고 있다고 본다. 회원들의 마음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모르나? 완전히 바뀐 건축사지를 요구한다. 이상.

11-8. 소규모 사무실의 정보부재

11-9. 「건축사」지 발행을 중지 또는 개선을 바랍니다

11-10. 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수고, 노력, 감사, 신뢰

12-1. 수고하세요.

12-2. 다 같이 노력합시다.

12-3. 감사합니다.

12-4. 건축사지편찬 T/F 위원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2-5. 두껍게, 알차게, 가치있게

12-6. 어려운 가운데 회원 여러분 건승을 빕니다.

12-7. 건축사 잡지 잘 보고 있음

12-8.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열심히 정진하길

12-9. 회원 간의 신뢰, 믿음, 존중

(3) 건축법규/발주제도 메카니즘

1. 실적 지상주의 메카니즘

1-1. 발주제도의 개선책-대형 건축사사무소 위주로만 편중되는 〈실적제한〉은 열심히 작품하고자 하는 건축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젊은 건축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건축사」지는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안 PQ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잡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답답하고 다급한, 대부분 건축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1-2. 건축 설계 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2010년 건축사지), 친환경 건축설계 아카데미 지상강좌(2011년 「건축사」지)

2. 관계법령

2-1. 건축법 중에서 모호한 해석에 의해 현재 정확한 법해석이 안되는 부분들을 실례와 국토해양부 답변을 열거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2. 개정된 법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개제바람(실무에 아주 유용 예상함)

2-3. 많은 관계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나 바쁜 업무로 변경사실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움으로 개정법령 및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게재하여 주시면 법령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4. 「건축사」지 이므로 협회와 회원을 위한 법 개정내용 및 건축사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을 보다 많이 수록 되었으면 합니다.

2-5. 건축 법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의 사유를 파악했으면 함.

2-6. 질의회신 사례나 판결내용 등을 수록하여 판단에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2-7. 건축법 판례 등 실무접촉에서의 해결 또는 해석에 대한 접근방법에 관한 실례를 많이 게재했으면 좋겠음.

2-8. 건축법규 변경 사항 등의 해설, 질의, 답변 등

2-9. 법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

2-10. 법 개정 관련사항

2-11. 법제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자주 올려주시기 바람

(4) 회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1. 먹고 살만 해야지

1-1. 설계만 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점이다. 건축사의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역에 대한 조사 및 사례에 관한 연재를 하면 유익할 것 같다.

1-2. 다수의 건축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홀로 건축사분들의 상당수 이상 되는 현실에서 멋진 작품과 멋진 글도 좋지만 한편으로 소외되어 있는 건축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런지요? 예를 들자면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모아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코너 같은거요. 먹고 살만해야지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 건축사를 위하여

2-1. 건축사의 위상이나 실익을 위한 기획물/ 제도개선을통한 제안→실무적인 접촉, 그 조치에 대한 경과보고→결과의 도출 보고 등 건축사를 위한 사안에 대하여 시리즈(수사 기법같은 추적?)로 이익실현 코너 마련은 어떨지. 협회의 대표적인 월간지로서 본 협회는 당연히 이익단체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2-2. 열악한 설계시장에 안주하지 않고…설계와 더불어 건축사들이 할수 있는 새로운 업역 또는 그런일을 하시는 건축사들의 경험들과 그런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관한 정보가 있었으면…

2-3. 건축 현업에 대한 애로사항

3. 신뢰

3-1. 건축사 현 상태의 고통은 어디서 오나? 건축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면의 실상은 허가방 도면이다. 감리는 형식상 감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목표로 업무를 책임제로 추진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5) 협회의 업무

1. 감사와 노력

1-1. 협회발전에 노력하신 집행부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2. 현상설계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협회의 노력 필요

1-3. 대응과 홍보

사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홍보한다. 예를 들면 구조프로그램의 교육 및 구입에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진행이다. 개발사에서는 판매를 위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하는데 반해 협회에서는 회원전용게시판을 통해 피동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개발사의 할인가 판매 마지막에 가서야 문자 1번, 팩스 1번 보냈다.

2. 문화적 인식

2-1. ① 문화 예술지로서의 접근– 고리타분함이 줄줄 흐르는 표지/ 열어 보면 역시나 한마디만 하면 끝을 알 것 같은 인간들의 초점 없는 야기들…(겨우 원고 부탁해서, 기름기 줄줄 흐르는 사회인사의 뻔한 야기들.)/ 쪽 팔려 이게 「건축사」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웬…추억의 잡지?/ 기술과 합리로 무장된 자 들의 속 터지는 한계들…상상도, 발침함도 없는 답답함

② 독립적 출판시스템– 건축사지는 회원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회장, 이사들의 뻔한 입장들. "아 우리 돈으로 만든 잡지, 이익보자는 것 아닌가요?"/건축사–건축설계–건축을 넘어 문화예술지로서의 접근은 절대 불가능해진다./건축사신문이 있지 않는가?/건축사지는 객관적이고, 문화예술지로의 독립을 부여해야한다./대상은 건축사를 넘어 국민이 되어야한다.

③ 배포– 건축사들에게만 배포하지 마세요./전 국민에게/모든 학생에게/인터넷에 e–BOOK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④ 경계– 경우 건축사라는 경계를 넘어/ 오히려 건축 잡지가 미술을, 음악을, 영화를…

⑤ 편집장– 고집세고, 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젊어서 재미와 매력이 넘치는 편집장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1년에 아니면 6개월 마다 변신을 해야 하니깐.

⑥ 예산편성이 첫째입니다. 그거 없이 적당히 잘 만들어 보자는 수작? 이런 것이 내가 꿈꾸는 「건축사」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회장, 이사진들의 고리타분함? 문화적 인식 부재?/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질까요? 후–

(6) 기타

1. 신기술, 신 재료 소개

1-1. 시리즈물 게재(신공법, 친환경, 특허, 신재료 등) / 해외 건축동향

1-2. 해외건축자료 작품과 비평

1-3. 기술적인 정보(상세도면이나, 새로운 기술등의 내용)

1-4. 건축재료, 특히 외장재 중 신제품 위주로 상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5. 신 재료의 소개코너

월간「建築士」誌 개선을 위한 설문 원문

Ⅰ. [기본사항 및 관심도]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4개 문항)

1) 응답하시는 건축사님의 만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지금까지 건축사님이 보유하신 건축사지는 몇 권 정도이십니까?
(1963년 특별법인 대한건축사협회를 설립한 이래 2011년 4월호까지 통권 제504호)
① 60권 이하 ② 61-120권 ③ 121-240권
④ 241-360권 ⑤ 361-480권 ⑥ 481권 이상

3) 건축사지는 얼마나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가끔 작품 게재와 글도 쓴다
② 작품은 게재하지 않더라도 옆에 두고 자주 보는 편이다
③ 대충 목차만 본다 ④ 거의 보지 않는다
⑤ 전혀 안 본다

4) 위의 5번 문항에서 만약 ③-⑤항목을 선택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별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② 잡지로서의 수준 미달
③ 회원작품(준공작품 등) 게재의 형식적 편집 불만
④ 업무에 바빠서 ⑤ 관심 없다

Ⅱ. [건축사지 만족도]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4개 문항)

5) 건축사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① 아주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매달 건축사지를 받아 보시면 처음 어느 부분부터 보십니까?
① 칼럼, 시론란 ② 회원작품(준공작품)란
③ 현상 공모작품, 계획작품란
④ 특집, 연재물, 건축만평, 보고서, 여행기외 모든 글 위주로 본다.
⑤ 건축마당(본협회 소식란 외) ⑥ 광고 등 기타부분
⑦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본다
⑧ 순서 없이 그냥 본다

7) 만약 건축사지편찬 T/F위원회로 부터 회원님 작품(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모두)과 글의 게재요청이 온다면?
① 즉시 응 한다 ② 준비한 후에 응 한다
③ 생각해 본다 ④ 거절 한다 ⑤ 기타

8) 위의 7번 문항에서 만약 ④항목의 내용인 〈거절 한다〉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잡지로서의 수준 미달 ② 업무에 바빠서
③ 대형작품 게재 위주의 불만 ④ 관심 없다
⑤ 게재 시 비용부담 ⑥ 기타

Ⅲ. [향후의 방향]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4개 문항)

9) 현재 건축사지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은? (3가지만 표기)
① 건축마당(협회소식 외) ② 칼럼, 시론란
③ 회원작품란 ④ 계획작품 작품노트
⑤ 설계경기 ⑥ 연재물
⑦ 건축만평 ⑧ 여행기
⑨ 기고, 보고서 ⑩ 각종 광고
⑪ 기타

10) 현 건축사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주 된 것 3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① 광범위한 필진(필자POOL)구성과 다양한 주제의식 부족
②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내용 및 구성의 부족
③ 회원작품(준공작품) 게재 시 형식적인 내용과 구성
④ 현상설계 작품 게재 시 당선 근거 및 과정 자료 등 미 공개
⑤ 건축 작품 비평의 부재 ⑥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⑦ 유용한 콘텐츠/편집 기획 부족
⑧ 협회의 업무소식과 홍보 부족
⑨ 해외 건축의 작품동향 빈곤 ⑩ 기타

11)앞으로 건축사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3가지만 표기)
① 전문가 상담 코너(세무, 법률 등) ② 회원 복지 정보
③ 건축비평 ④ 건축이론 및 미학
⑤ 인문학 ⑥ 회원 상호간 고충 상담 코너
⑦ 제 문화정보(전시, 공연, 답사 등)
⑧ 본 협회 진행사항의 세밀한 소식란 ⑨ 기타

12) 기타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라도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